

거창한 계획·약속 보다 투자기업 지원 먼저

박근혜 시대

광주전남 현안·공약 점검

③ 동북아해양관광특구·J프로젝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발전 공약 중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재도시(J프로젝트) 건설사업 지원’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낙후된 전남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들 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어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거창한 사업 계획과 언제 이뤄질지 모를 예산 지원 약속보다는 투자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

중국 관광객 전남 유치 핵심사업

정부가 의지 보이면 탄력 받을 것

원칙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이 공약은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너지를 창출해 남해안을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J프로젝트의 조기 완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수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하고, J프로젝트 관련 SOC 건설과 정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과거 정부에서 ‘남해안 선벨트(Sun Belt)’사업을 계획한 거창하게 짜놓고 거의 추진하지 않아 전남의 지역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해양레저관광특구와 J프로젝트 지원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남도 등은 일단 올해 국고 예산에 J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비용 1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차기 정부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J프로젝트의 한 단자인 구성지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추진 10년 만인 올 상반기 첫 삽을 뜨게 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또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동북아 해양관광특구와 J프로젝트는 중국 관광객을 전남에 유치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면서 “정부에서 작은 관심만 보인다면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과거 정부가 되풀이했던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의 경우 ‘박람회장을 매각해 정부 차입금 4846억원을 우선 갚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 침체 속에서 거액을 투자할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간척지를 사들여 사업을 추

진하는 J프로젝트로 수년째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와 땅값 문제로 대부분 단지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장과 간척지를 기업에 장기임대해주거나 매입비용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원장은 “이들 공약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업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박람회장과 간척지만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투자 기업이 몰려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업도 조기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절반의 민심은 아프다”

황석영 내일 광주서 ‘힐링 사인회’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대선 패배 시민 위로

“절반의 민심은 지금 몹시 아프다. 그들을 헤아리고 보듬는 것이 큰 과제다.”

작가 황석영<사진>이 빛고을에서 힐링사인회를 갖는다. 새정치 국민연대 주최로 5일 오후 4시~6시 빛고을시민문화관(구 동) 1층 갤러리에서 ‘위로와 공감’을 주제로 여는 이번 사인회는 지난 대선 이후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지역민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사인회는 올레로 등단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전업작가로서 받은 과분한 사랑을 독자



들에게 돌려드리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 출간한 ‘여울물소리’를 참

석자 200명에게 무료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자음과모음 출판사가 후원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광역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문의 010-3459-195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선도 생산도시’로

올 목표 광주 160억 달러·전남 450억 달러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수출목표를 사상 최대로 정하고 ‘수출선도형 생산도시’로 거듭나기로 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대비 17억달러가 늘어난 160억달러로 늘려잡았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115억달러에 이어 2011년 134억달러 등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부산보다 4억여달러가 앞서기도 했다. 광주시는 올해 금형산업과 광산업 등 수출 선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도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7%가량 늘어난 450억 달러로 정하고 12개 단위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수출상품 다변화 등 안정적 해외 판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영농조합, 마을기업 등 공동체 기업과 도 전략품목인 신소재, 조선 기자재, 생물의약품 등 특산자원 생산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수출 38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연 말까지 42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4%로 전국 평균(14.6%)을 훨씬 웃돌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담양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선정됐다

3년간 100억원 지원받아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해 600ha 이상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담양군이 선정돼 3년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2013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대상지역으

로 담양 등 2곳을 선정하고, 1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광역방제기, 퇴비살포기, 공동육묘장, 벼 건조저장시설 등과 함께 소와 돼지 등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 퇴비로 만드는 이른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취학아동 예방접종 광주 북구 보건소는 3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앞두고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폴리오·홍역·풍진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아파트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구별로 요금 부과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가구별로 요금이 부과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2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RFID(전자파를 이용한 개별인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통에 장착

된 칩에 교통카드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카드를 대면 투입구가 열리고 버린 쓰레기양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서버에 입력된 가구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해 kg당 63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RFID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음식물쓰레기통에 칩을 설치하고,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카드를 나눠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

난 2011년부터 남구 공동주택 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5년까지 80여万户의 예산을 확보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35만여 가구 전체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 김순옥 자원순환담당관은 “새로운 종량제 방식이 도입되면 버린 양만큼 요금이 부과돼 쓰레기 배출량이 30%가량 줄고 처리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 갔습니다

특전부사관과도 역시 조선이공대학교

2012년 졸업생 100%취업 부사관 80%입관
2012년 특전부사관 군정학생 선발시험 전국 최다 합격
특전부사관 및 육해공군 부사관 동시 지원가능 100%보장
부사관 학과 중 납부금 가장 저렴 각종 장학금 혜택
교수 3명 전원 특전사 대령 출신으로 맞춤형 교육

2012년도 부사관 합격자 명단

2학년 (6명) 육군 부사관 여군 이*진, 이*빈, 양*홍, 방*은, 김*혜 (5명)

특전 부사관 203기 정*현 (1명)

특전 부사관 사전선발(204기)

사전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학기 국비 장학금 지급
반*진, 연*성, 김*훈, 최*석, 박*훈 김*주, 김*욱, 김*현, 김*길
전*현 (10명)

1학년 (20명) 특전 부사관 사전선발(예비)

김*성, 정*훈, 김*수, 정*하, 윤*진 김*훈,전*형, 전*훈, 엄*민,
김*현 박*석, 이*레, 소*영, 김*현, 유*재이*현, 김*수, 이*환,
이*한 (19명)

특전부사관 여군 203기

전국최초 특전부사관 학과 출신 김*정 (1명)

연락처 062-230-8920(학과실) 010-5339-9666(이성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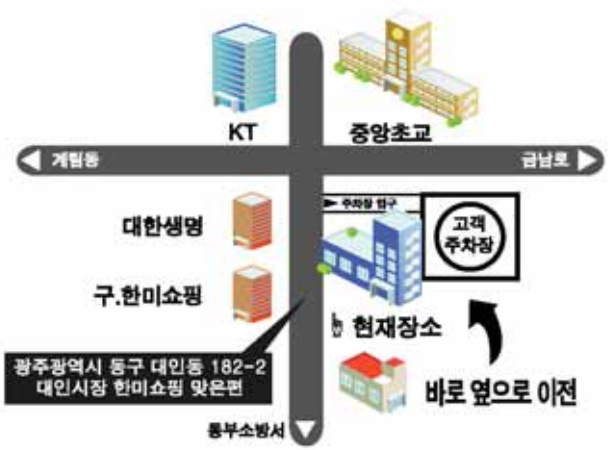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지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지미두수)로 수십년을 요절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점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별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꿈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www.gwangam.co.kr

(주)광암스틸 사원모집



모집요강

업종	선재(철선) 제조업
모집직종	영업사원 : 0명(35세 이상, 타업체 영업경험자 우대) 생산직사원 : 00명(무경험자 가능) 공무(기계수리) : 0명(유경험자 우대)
생산종목	보통철선, 소둔선, 결속선, 외이어메쉬

접수기간 | 2013. 1. 4(금) ~ 2013. 1.31(목)

접수처 | (주)광암스틸 관리부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전형절차 | 면접전형



문의전화 | 061)393-6997
전남 창성군 동화면 남평리 1062-8